

'96 자연공원 세미나 개최



'96 자연공원 세미나가 12월 10일 오후 2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국립공원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던 자연공원 세미나를, 올해는 지난 7월 발족된 국회 국립공원발전연구회(회장 권익현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현실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이상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권익현의원(국회 국립공원발전연구회 회장)의 개회사, 이경식 국립공원협회 회장의 환영사, 김수한 국회의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주제발표는 함중환 의원(국회 국립공원발전연구회 수석부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1 : 국립공원의 생태학적 보존 방안

발표자 : 김종원 (계명대 교수)

토론자 : 변우혁 (고려대 교수, 국립공원협회 자연공원연구

소장)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각 공원의 생태학적 특성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각 국립공원형에 대한 관리방안은 그 분류형태에 따라 달리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관광객의 급증으로 심해지고 있는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

압력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탐방객 통제를 위한 공원규찰제 도입 등 관광객 저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통합관리기구로서 한국국립공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맞는 다양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주제 II : 국립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자 : 박석희 (경기대 교수)

토론자 : 이연택 (한양대 교수)

▶주요 내용 : 국립공원의 정책목표에 있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속적 이용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또 국립공원전체를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국립공원의 계절적 매력포인트를 찾아내 이를 적절히 포장하고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또 탐방객이 손님이라는

마인드를 갖춰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야 할 것이다.

주제 III : 국립공원 관리의 현실 및 제안

발표자 : 김성기(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이사)

토론자 : 오희영(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 교수, 국립공원협회 부회장)

▶주요 내용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우리에게 알맞은 국립공원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사법권을 포함한 현장관리의 제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원관리청 신설이 시급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립공원의 보존과 이용', 이 두 측면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조화시킬 것인가



가장 핵심문제라고 생각하고, 외국과는 다른 여건을 가진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모두 공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그러나, 정작 국립공원의 정부주주관청인 내무부에서는 세미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등 관심을 보이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하였다.

추계 임원 등반대회 개최 칠갑산 지부 창립 15주년 기념

칠갑산 지부 창립 15주년을 맞아 자연사랑운동을 확산시키고 협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경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전문위원의 등반대회를 1996년 10월 6일 칠갑산에서 개최하였다.

등반대회를 마친 후에는 칠갑산 유래비 제막식 및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칠갑산 유래비 제막 광경

전문위원회개최

자연공원세미나등 토론



국립공원협회는 전문위원회를 지난 11월 30일 오후 시내 프레스센터 19층에서 「'96자연공원세미나」 및 「'96~'97 국립공원문화제전」 개최에 따른 행사 프로그램(사생대회, 글짓기대회, 자연탐방, 전통민속게임

등) 전반에 걸쳐 토론을 가졌다.

이경식 회장 KBS TV 「체험 삶의 현장」출연

이경식회장은 지난 12월 9일 저녁 방영된 KBS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하여 강원도 고성에서 양미리를 잡은 체험담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방송에서 특유의 재치있는 유머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웃음바다로 몰아 넣기도....

오휘영 부회장 「환경과 조경」 '96우수잡지상수상

환경과 조경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96 우수잡지 수상

월간 「환경과 조경」(발행인: 오회영 부회장)이 지난 11월 1일 제31회 잡지의 날 시상식에서 1천5백여종의 잡지중 「95 국내 우수잡지」로 선정되었다.

'82년 7월 조경 및 관련분야의 학술.기술.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계간으로 창간된 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정기 간행물의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환경과 조경 전문지 시대를 열었다.

배종렬 이사 제일기획 사장 취임

배종렬이사는 12월 24

일 중앙일보 부사장에서 제일기획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김 남 관리공단 이사장

'97년도 국립공원 달력제작 공단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대표적 자연경관과 야생화 사진을 담은 '97년도 국립공원 달력을 제작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보호의식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홍보용으로 배포된다.

1997 · 丁丑年



국립공원관리공단
NATIONAL PARK SERVICE

우한정 전문위원 연구소개설

우한정 전문위원 (전한국자연보존협회 사무총장)은 '한일야생생물연구소'를 개설 하였다. (T.902-0061)

장태현회원 박사학위 취득

청주대 조경학과 교수인 장태현 회원은 12월 홍익대에서 「도시 광장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송국범회원 수필집펴내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 수필집 펴내...

태안해안지부의 송국범 회원(충남 서산시 팔봉중학교 교감)은 지난 20여년간 교직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느끼고 겪은 이야기를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수필집을 발간하였다.



고사위기의 소나무

〈북한산 동부지부〉

백년된 노송 최근들어
입이 마르고 줄기에 흑이
생기는 등 고사위기

북한산 동부지부(지부장 권효섭)에서는 도봉산 선인봉 정면 암벽루트(박쥐길)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약 100여년된 노송이 최근 들어 마르고 줄기에 흑이 생기는 등 고사위기에 처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면적인 노송살리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 소나무는 도봉산 입구에서도 보일 정도의낙락장송으로 도봉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로부터 감탄

과 찬사를 받아 왔던 것으로, 특히 암벽등반을 하는 전문 산악인들의 아주 좋은 휴식처를 제공해 주었으나, 고사위기에 처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받고 있었다.

북한산 동부지부에서는 전격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하여 현재 소나무의 제원(높이 15M, 폭 13M, 전체둘레 1.86M, 가지수 2줄기 25가지)을 파악하고, 잎이 마른가지 5가지와 흑이 생긴 가지 12가지(흑 23개) 노출된 뿌리 5개를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였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소나무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

며, 주변의 불량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보호막을 나무로 설치하기 위한 전면작업에 들어갔으며, 소나무 전문가를 찾고 있다.

전문가에 의뢰하여 살리는 방안이 강구되면 서울 특별시산악연맹 산악구조대에서는 전대원(36명)이 참가하여 (소나무가 암벽루트 중간에 있어 암벽전문가들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움) 앞장서서 살리기로 하였다.

(알림)소나무 살리는데 전문적인 조연가가 필요합니다.

소나무 살리는데 필요한 자료나 조언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악구조대 총무 김 남 일

02-549-5772

〈오대산 서부지부〉

산불조심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전개

오대산 국립공원 서부지



부(지부장: 홍형옥)는 지난 11월 15일 오대산국립공원내 월정사 입구에서 상원사에 이르는 계곡에서 회원 40여명과 관리소 직원 7명과 함께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산불조심전단을 탐방객에게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칠갑산 지부〉

칠갑산 유래비 제막식

및 기념행사 실시, 기념책자 발간

칠갑산 지부 창립 15주년 기념

칠갑산의 역사와 풍물

을 소개하는 유래비가 국립공원협회 칠갑산지부(지부장 박철성)의 노력으로 건립되었다.



칠갑산 산장 뒷편 등산로 입구에 세워진 유래비는 지난 10월 6일 제막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날 행사에는 이경식 국립공원협회 회장을 비롯

한 임원 및 본부회원 40여명과 이완구 국회의원, 정원영 군수 등 각급기관단체 및 협회지부 회원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칠갑산 공원협회 창립 15주년 기념사업으로 회원들의 성금 4백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된 유래비는 높이 2.5M의 오석으로 만들어졌고 비문에는 “칠갑산은 백제의 진산으로 제천의식이 행해졌으며 만물생성의 7대

근원인 七자와
 甲자로 七
 甲山은 생
 명시원의
 성산”이라
 고 적고 있
 다.

